

2017. 05. 08. ~ 2017. 05. 14. 주간

135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 저장동향, 가격 · 생산전망
- 양파 생산 ·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곡성군, 유기농 『백세미』 쌀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 장흥군, 생약초와 한방제품 영국 수출길 오른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확대
- 참다래 풍년 농사는 인공수분에서부터

정책동향

- 전남도, 농번기 효자사업 『마을공동급식』 확대
- 동계 사료작물 76만톤 일제 수확

사업신청 및 홍보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유기농 매뉴얼로 친환경 인증 확대 앞당긴다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16도, 최고기온: 21~26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6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저장동향, 가격·생산전망
- ▶ 양파 생산·가격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곡성군, 유기농 『백세미』 쌀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 ▶ 장흥군, 생약초와 한방제품 영국 수출길 오른다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벼 비래해충 벼멸구, 애멸구, 멸강나방의 친환경 방제자재 선발
- ▶ 해금골드키위에서 녹응애 피해증상 및 예방법
- ▶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 보급 확대
- ▶ 못자리 1회관주, 논독관리 등으로 벼농사 노력비 51.8% 줄인다
- ▶ 품질 좋은 풀사료 담근덕이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
- ▶ 참다래 풍년 농사는 인공수분에서부터
- ▶ 배 정형과 생산은 열매숙기부터...
- ▶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
- ▶ 꽃양귀비 앞에서 의약소재 대사물질 밝혀내
- ▶ 시설재배 무화과 『대만총채벌레』 방제 서둘러야
- ▶ 복숭아순나방붙이 제때 방제로 자두 낙과 예방하세요
- ▶ 폭염 피해 막을 가축 열스트레스 지수 개발

6. 정책 동향 30

- ▶ 전남도,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나서
- ▶ 전남도, 농번기 효자사업 『마을공동급식』 확대
- ▶ 동계 사료작물 76만톤 일제 수확
- ▶ 수입묘목재배지 등 외래식물병해충 중점예찰 실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4

- ▶ 여수시, 돌산갯 농림부 6차산업 공모사업 선정 3억원 확보
- ▶ 광양시, 광양매실초콜릿 상품화로 판로 확대 나선다
- ▶ 곡성군, 못자리 생략 직파재배 생산비 절감 농가 호응
- ▶ 보성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 ▶ 화순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교육 강화
- ▶ 영암군,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활동 지원
- ▶ 영광군,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 교육 신청 안내

8. 해외 농업정보 41

- ▶ 국립종자원, 케냐·베트남과 품종보호 MOU 체결
- ▶ 중국, 화훼산업 급성장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5.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소폭 하락 마감하였음. 미국 남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의 과도한 습기로 인한 작물 품질에 대한 우려는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향후 습한 기후가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수출 데이터 발표에 앞선 차익 실현으로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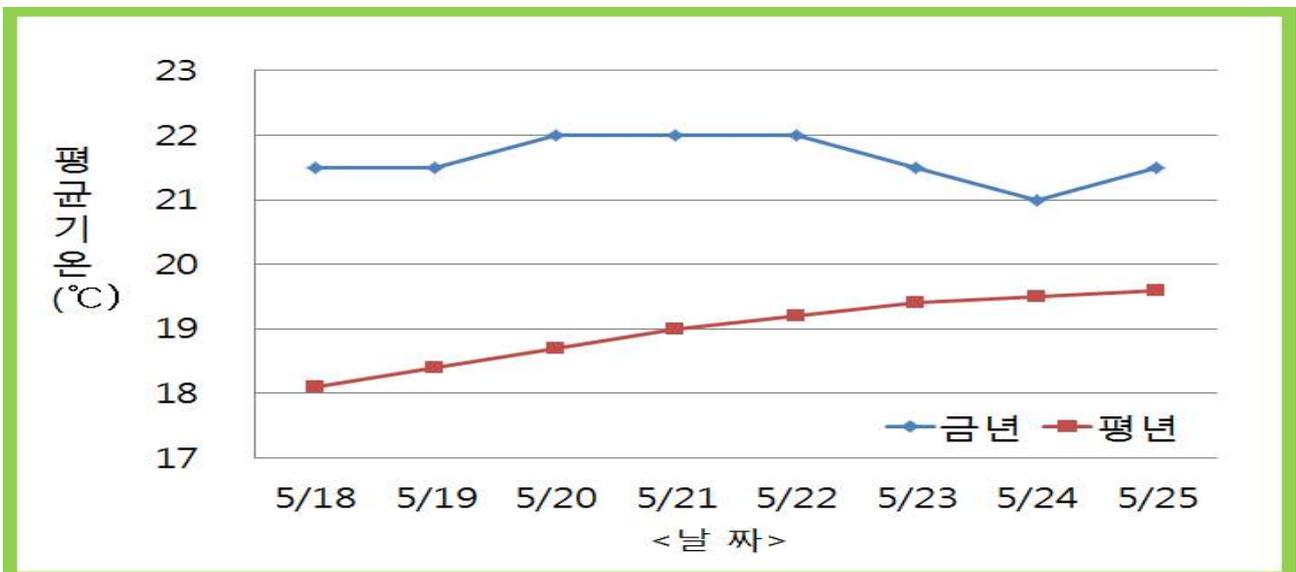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 전남농기원, 유기농 매뉴얼로 친환경 인증 확대 앞당긴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5월 18일~5월 25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1.6°C (평년대비 2.6°C 높음)
- 최고기온 : 28.3°C (평년대비 3.3°C 높음)
- 최저기온 : 15.0°C (평년대비 1.2°C 높음)
- 강수량 : 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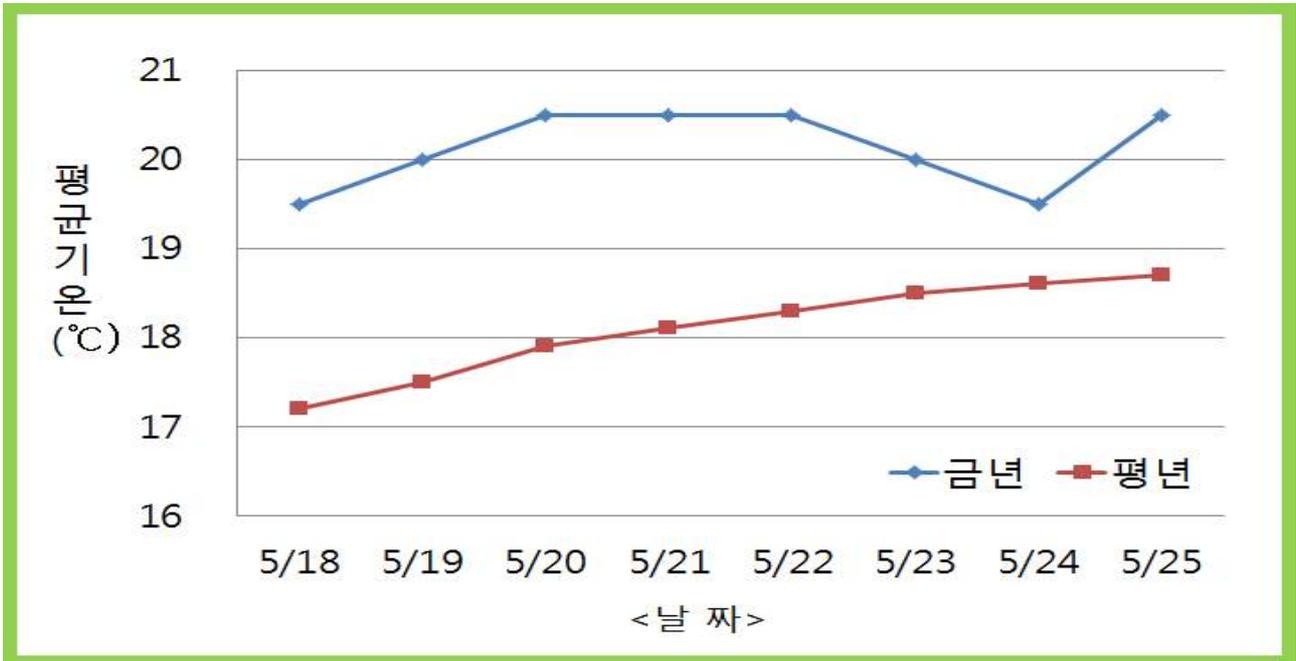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6	19.0	2.6	28.3	25.0	3.3	15.0	13.8	1.2	2.3
5. 18.(목)	21.5	18.1	3.4	29.0	24.0	5.0	14.0	13.0	1.0	3.4
5. 19.(금)	21.5	18.4	3.1	29.0	24.4	4.6	14.0	13.2	0.8	3.2
5. 20.(토)	22.0	18.7	3.3	29.0	24.8	4.2	15.0	13.5	1.5	3.0
5. 21.(일)	22.0	19.0	3.0	29.0	25.1	3.9	15.0	13.7	1.3	2.3
5. 22.(월)	22.0	19.2	2.8	29.0	25.2	3.8	15.0	13.9	1.1	1.8
5. 23.(화)	21.5	19.4	2.1	28.0	25.3	2.7	15.0	14.1	0.9	1.7
5. 24.(수)	21.0	19.5	1.5	26.0	25.4	0.6	16.0	14.2	1.8	1.5
5. 25.(목)	21.5	19.6	1.9	27.0	25.5	1.5	16.0	14.5	1.5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5월 18일~5월 25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0.1℃ (평년대비 2.4℃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2.2℃ 높음)
- 최저기온 : 15.0℃ (평년대비 0.9℃ 높음)
- 강수량 : 2.4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C)			최고기온 (°C)			최저기온 (°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1	18.1	2.4	25.3	23.1	2.2	15.0	14.2	0.9	2.4
5. 18.(목)	19.5	17.2	5.0	25.0	22.2	2.8	14.0	13.4	0.6	3.2
5. 19.(금)	20.0	17.5	2.5	26.0	22.6	3.4	14.0	13.6	0.4	3.3
5. 20.(토)	20.5	17.9	2.6	26.0	22.9	3.1	15.0	13.9	1.1	2.8
5. 21.(일)	20.5	18.1	2.4	26.0	23.1	2.9	15.0	14.1	0.9	2.5
5. 22.(월)	20.5	18.3	2.2	26.0	23.3	2.7	15.0	14.3	0.7	2.0
5. 23.(화)	20.0	18.5	1.5	25.0	23.4	1.6	15.0	14.5	0.5	2.0
5. 24.(수)	19.5	18.6	0.9	23.0	23.5	-0.5	16.0	14.6	1.4	1.8
5. 25.(목)	20.5	18.7	1.8	25.0	23.6	1.4	16.0	14.8	1.2	1.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5월 18일~5월 25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0.0℃ (평년대비 1.7℃ 높음)
- 최고기온 : 23.9℃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16.1℃ (평년대비 2.3℃ 높음)
- 강수량 : 4.6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0	18.3	1.7	23.9	22.2	1.7	16.1	13.9	2.3	4.6
5. 18.(목)	20.5	17.6	2.9	25.0	21.4	3.6	16.0	14.4	1.6	5.2
5. 19.(금)	19.5	17.9	1.6	24.0	21.7	2.3	15.0	4.7	10.3	5.5
5. 20.(토)	20.0	18.1	1.9	24.0	22.1	1.9	16.0	14.8	1.2	5.3
5. 21.(일)	20.0	18.4	1.6	24.0	22.3	1.7	16.0	15.1	0.9	4.3
5. 22.(월)	20.0	18.6	1.4	24.0	22.5	1.5	16.0	15.3	0.7	4.0
5. 23.(화)	19.5	18.6	0.9	23.0	22.5	0.5	16.0	15.4	0.6	4.4
5. 24.(수)	20.0	18.7	1.3	23.0	22.6	0.4	17.0	15.5	1.5	4.1
5. 25.(목)	20.5	18.8	1.7	24.0	22.6	1.4	17.0	15.6	1.4	3.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저장동향, 가격·생산전망

- 저장동향 : 국내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1만 2천톤 추정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입고량이 적었던 전년보다 7% 많은 약 8만톤으로 조사되었다.
 - 4월 말 기준, 감모를 감안한 2016년산 국내산 난지형 마늘의 재고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전년보다 18% 많은 1만 2천톤 내외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월대비 약보합세 전망
 - 5월 깎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 증가와 정부 수입 비축물량 방출로 전년보다 낮고, 전월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산 마늘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0% 증가하고, 평년과 비슷한 24,864ha이다.
 - 2017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2% 증가한 33만톤 내외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파 생산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7년산 양파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17년산 양파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 감소한 1만 9,538ha이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보다 7%, 중만생종은 1% 감소하였다.
- 2017년산 조생종양파는 4월 적절한 강우로 생육이 매우 원활하여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 많은 6,392kg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산 조생종양파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5% 적으나, 평년보다는 36% 많은 17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7년산 중만생양파의 생육상황은 평년보다는 좋으나, 전년보다는 다소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만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적은 6,325~6,500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중만생종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5% 감소한 1,059~1,088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5월 양파 공급량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7% 적은 16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 5월 양파 상품 kg당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공급량 감소로 전년 (590원)보다 높은 7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곡성군, 유기농 『백세미』 쌀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 곡성군(군수 유근기) 석곡농협(농협장 김재경)과 섬서한국중소기업산업단지(회장 진소군)는 5월 3일 친환경단지에서 재배한 유기농 『백세미』의 중국 진출에 따른 한국우수기업제품(특산품) 전시장 입점과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한 상호 협력과 교류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백세미』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나오는 우수 특산품 중국 진출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김재경 농협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류활동을 통해 급냉해진 한·중 관계에서도 곡성군과 석곡농협이 주축이 돼서 우리지역 특산품의 중국 수출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섬서한국중소기업산업단지 진소군 회장은 “유기농 『백세미』가 한국우수기업제품 전시장에 입점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계기로 전남의 우수특산품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전남의 특산품 등의 수입에 따른 인·허가와 물류에 더욱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석곡농협은 『백세미』 중국 진출에 따른 제반적인 행정 절차와 서안 최대 기업인 금화그룹 백화점 입점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 출처 : 곡성군

장흥군, 생약초와 한방제품 영국 수출길 오른다

- 장흥군 산야초마을(대표 김승연)은 영국 코리아푸드(KOREA FOOD Ltd)사와 2017년 3월, 5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고 이르면 오는 7월 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장흥에서 생산한 황칠·결명자·도라지·헛개나무 등 생약초로, 영국 내 매장 5곳에서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 산야초마을은 3월 23일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에 참가해 이번 수출계약 체결의 성과를 거뒀다.
- 장흥군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홍콩·대만 등에는 꾸준히 지역 특산품을 수출해왔지만, 유럽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번 수출에 큰 의미를 뒀다.
- 산야초마을은 2011년, 미국법인 비앤에이 건강식품(B&A Health Products.Inc)과 20만달러(15톤) 규모의 수출계약을 시작으로, 캐나다·동남아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해 왔다.
- 국내에는 롯데슈퍼마켓, 하나로마트, 김스클럽 등 250여개 매장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장흥군 장동면에 위치한 산야초마을은 2003년 설립된 국산 한방 생약초 전문생산업체로 국내 생약초 25종을 가공해 유통하고 있다. 특히 장흥군 소재 연구기관인 한방진흥재단, 전남천연자원연구원과 손잡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 출처 : 장흥군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5. 1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15)	1주일전 (05/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827	↓ 12.2	↓ 24.0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62,467	↑ 14.7	↑ 5.9
	고구마(밤)	10kg	27,400	26,600	26,000	30,450	29,417	↓ 10.0	↓ 6.9
	감자(수미)	20kg	51,000	45,800	33,200	43,300	40,527	↑ 17.8	↑ 25.8
채 소 류	배추(봄)	1kg	370	400	-	1,150	854	↓ 67.8	↓ 56.7
	양배추	10kg	4,500	4,400	5,025	12,250	9,277	↓ 63.3	↓ 51.5
	오이(다다기계통)	10kg	11,333	11,333	14,583	14,083	15,583	↓ 19.5	↓ 27.3
	애호박	8kg	10,800	8,000	12,800	11,250	11,753	↓ 4.0	↓ 8.1
	건고추(화건)	60kg	550,000	560,000	560,000	710,000	778,667	↓ 22.5	↓ 29.4
	풋고추	10kg	49,400	62,600	53,850	43,750	46,470	↑ 12.9	↑ 6.3
	마늘(깐마늘)	20kg	135,400	135,800	139,500	175,000	119,093	↓ 22.6	↑ 13.7
	양파	20kg	22,400	18,800	25,600	13,950	14,217	↑ 60.6	↑ 57.6
	당근	20kg	34,200	37,400	46,100	33,950	30,743	↑ 0.7	↑ 11.2
	대파	1kg	1,660	1,740	2,205	2,403	1,855	↓ 30.9	↓ 10.5
	파프리카	5kg	16,200	17,400	21,450	18,200	20,820	↓ 11.0	↓ 22.2
	딸기	1kg	-	5,900	6,000	6,925	6,805	-	-
	토마토	10kg	20,400	18,600	25,350	17,500	22,360	↑ 16.6	↓ 8.8
	방울토마토	5kg	19,800	19,800	21,200	14,700	16,960	↑ 34.7	↑ 16.7
	수박	1개	18,200	19,600	16,300	15,450	16,887	↑ 17.8	↑ 7.8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400	37,000	38,400	36,600	49,191	↑ 4.9	↓ 21.9
	배(신고)	15kg	44,200	43,400	42,000	44,400	46,000	↓ 0.5	↓ 3.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15)	1주일전 (05/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5,000	551,000	↓ 1.1	↓ 5.8
	느타리버섯	2kg	11,200	11,400	12,150	13,650	11,987	↓ 17.9	↓ 6.6
	새송이버섯	2kg	7,200	7,000	7,600	8,200	8,227	↓ 12.2	↓ 12.5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91	7,672	7,760	7,273	6,383	↑ 5.7	↑ 20.5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21	2,071	2,008	2,002	1,871	↑ 10.9	↑ 18.7
	닭고기	1kg	5,906	5,616	5,382	4,915	5,373	↑ 20.2	↑ 9.9
	계란(특란)	30개	7,962	7,874	7,614	4,922	5,590	↑ 61.8	↑ 42.4
	우유	1리터	2,530	2,529	2,529	2,549	2,480	↓ 0.7	↑ 2.0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5. 1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08 천원	5,247 천원	5,915 천원	↓ 0.7	↓ 12.0
	거세	6,586 "	6,139 "	7,186 "	↑ 7.3	↓ 8.3
송아지 (6~7월)	암	2,943 "	2,907 "	3,167 "	↑ 1.2	↓ 7.1
	수	3,713 "	3,647 "	3,866 "	↑ 1.8	↓ 4.0
육우(600Kg)		2,922 "	2,892 "	3,371 "	↑ 1.0	↓ 13.3
젓소수송아지(7일령)		206 "	190 "	335 "	↑ 8.4	↓ 38.5
돼지(110kg)		398 "	437 "	404 "	↓ 8.9	↓ 1.5
육계(원/kg)		2,457 원	2,279 원	1,257 원	↑ 7.8	↑ 95.5
계란(원/특란10개)		2,117 "	2,083 "	940 "	↑ 1.6	↑ 125.2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한우(거세우) : 7,039천원/마리(△453)**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713**)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벼 비래해충 벼멸구, 애멸구, 멸강나방의 친환경 방제자재 선발

□ 개발기술 내용

- 비래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친환경자재 종류

대상해충	친환경자재명	주성분 함량	방제가(%)
벼멸구	고삼+계피추출물	고삼 70%+계피 15%	80
	식물추출물	고삼+멸구슬+양명아주 91%	80
	마늘유	마늘유 30%+시트로넬라유 30%	80
애멸구	식물추출물1	회화+멸구슬+양명아주 90%	70
	식물추출물2	고삼+멸구슬+양명아주 91%	70
멸강나방	고삼추출물	고삼 80%	90
	피마자유	피마자유 50%	90
	고삼+차추출물	고삼 95%+차 5%	90

※ 식물별 살충성분과 함량 : 님(아자디락틴, 0.9%), 고삼(마트린, 0.6%), 양명아주 (터피놀렌, 30%), 계피(신남알데하이드, 20%), 차(카테킨, 10%), 멸구슬(아자디락틴)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선발자재를 이용하여 적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군농업기술 센터에 정보제공 및 대농민 교육, 상담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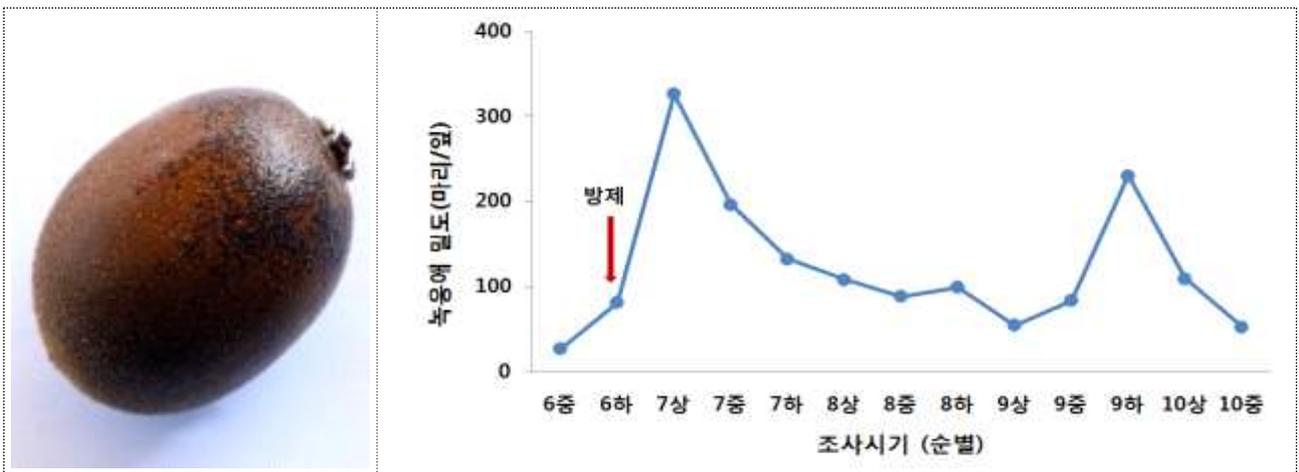
- 비래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자재선발로 방제효율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 해금골드키위에서 녹응애 피해증상 및 예방법

□ 개발기술 내용

- 과일 표면에 작은 흑점 및 고유색 퇴색 원인은 녹응애 피해 증상으로 확인
- 녹응애는 6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 8월 상순부터 과일에 피해증상이 나타므로 6월 중·하순에 방제 실시
 - 각지벌레 방제로도 예방이 되며 친환경자재도 방제효과가 좋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해금 재배농가 현장 컨설팅을 통한 대농민 홍보 및 기술보급
- 녹응애 방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으로 농가 실천 조기 달성

□ 기술개발 파급효과

- 해금골드키위 재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로 안정생산에 기여
- 외관을 비롯한 품질향상으로 명품과일 생산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 보급 확대

- 노동력 23·생산비 10·경영비 8% 절감, 일석삼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직파기술인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을 적극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 국·도비 시범사업 6개소를 운영하며, 『벼 무논점과 핵심 실천기술』 리플릿 1만매를 제작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였다.
- 벼 무논점파기술은 썬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 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하며, 농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나 승용이앙기에 파종기만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고, 1회 작업 시 8~10줄이 동시에 파종되며 비료도 함께 주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못자리 설치 등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못자리 없는 벼 재배법으로 관행 모내기에 비해 노동력 23%(9.5→7.3시간/10a), 총 생산비 10%(753→677천원/10a), 경영비 8%(478→440천원/10a)가 절감되는 기술이다.
- 또한, 기존의 직파재배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발생,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수량성이 기계모내기와 비슷한 계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못자리 1회관주, 논독관리 등으로 벼농사 노력비 51.8% 줄인다

- 이앙+시비+제초 동시실시 기술 등 생산비 절감기술 종합 연사회 개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장흥군(군수 김성)은 5월 10일 장흥군 관산읍 바우쌀단지에서 벼농사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날 연사회에는 벼 재배농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기술 현장시연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농가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 금년에 추진한 벼농사 생산비 절감모델 개발사업에는 땅강아지, 드랭이 등 땅속 동물의 피해로 인한 물관리 노력절감을 위해 PE필름을 설치하고, 적정한 종자 파종, 이앙직전 모판 관주 1회 병해충 관리, 이앙 동시 측조 시비 등의 시범요인이 투입되었다.
- 특히, 벼농사 못자리 1회 관주처리 기술은 약제 살포 회수를 관행 2회에서 못자리 1회 관주처리(본답살포 1회 생략)함으로써 10a당 약제 살포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95% 절감할 수 있고, 벼 이앙동시 1회 시비기술(모 이앙과 동시에 시비하는 방법으로 뿌리 주변에 코팅비료를 살포하여 전 생육기간 동안 양분 공급 가능)의 경우 10a당 이앙 및 시비시간을 관행 39분에서 34.3분으로 12%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이 모델이 완성될 경우 이앙, 시비, 제초제 살포, 방제까지 소요되는 노동 투입시간과 비용을 51.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품질 좋은 풀사료 담근먹이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

-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수확적기 출수후기~개화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겨울철 풀사료 수확 적기가 다가옴에 따라 품질 좋은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품질 좋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담근먹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수확에 가장 알맞은 시기는 출수 후기~개화기 사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수분함량이 60~65% 내외로 되게 논밭에서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충분히 낮추어야 하며, 포장에서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 영양소 손실이 일어나므로 최대한 빨리 건조해야 한다.
- 둘째, 곤포 작업을 할 때 압력을 최대로 하여 작업기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단단하게 감아야 하며, 셋째, 발효를 촉진하고 기호성을 좋게 하기 위해 미생물제 등 첨가제를 이용하여 조사료 품질 등급을 올리고, 넷째, 곤포 후 빨리 비닐을 감아 주고 감는 횟수는 단기보관일 경우 6겹으로 감도록 하고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8겹 이상으로 감아야 한다.
- 또한 저장 시 수분 함량에 따라 쌓는 단수를 조절하지만 되도록 2단 이하로 하여 안전성과 모양의 변형을 막아야 하며, 담근 먹이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되는 특성상 보관 중 새나 쥐에 의해서 비닐이 구멍이 나면 부패가 일어나므로 수시로 관찰하여 구멍이 나면 테이프로 즉시 막아 주어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참다래 풍년 농사는 인공수분에서부터

- 참다래 재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꽃가루 채취와 인공수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참다래의 안정적인 결실과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꽃가루 채취와 인공수분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도 참다래 재배면적은 583ha에 달하며, 전국 생산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작물이다. 참다래는 암수딴그루로서 수꽃 품종은 암꽃품종에 비해 개화의 개시가 2~3일 빠르고 종료는 2~3일 늦어 개화기간이 긴 편이다. 수분에 알맞은 꽃가루는 개화 후 2~3일 이내의 것이 꽃가루 활력이 좋다.
- 인공수분에 필요한 수꽃은 개화직전 팝콘처럼 부풀었을 때 채취하면 활력이 좋은 꽃가루를 많이 수집할 수 있다. 꽃의 채취는 아침 일찍 개화 직전에 큰 꽃봉오리를 골라서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꽃가루가 나온 꽃밥은 바람이 없는 장소에서 100~150매쉬의 채를 이용하여 꽃가루를 분리 채집한다.
- 또한 참다래 꽃가루는 실온에서는 5일 정도 발아능력이 있으나 저온, 건조 상태 하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다.
- 참다래는 800~1,400개(골드키위 600~800개)의 많은 종자를 갖는데 과일의 크기는 종자가 많을수록 크며, 종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많은 수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어서 씨방에 들어가야 상품성이 좋은 과일이 착과된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수를 충분히 혼식해야하고 수분수가 부족한 과원에서는 수분수를 높이접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해야한다.

- 특히 벌과 방화곤충의 출입이 어려운 비가림 하우스 재배농가, 파풍막 시설에 있는 농가에서는 인공수분은 더욱 필수적이다.
- 참다래 인공수분 시 소요되는 꽃가루는 증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0평당 10~20g 정도이다. 인공수분에 사용할 꽃가루는 발아율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공수분작업은 암꽃의 개화 당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 참다래 인공수분 방법은 가루수분 방법과 물수분 방법이 있다. 가루수분방법은 꽃가루 소요량이 적고 인공수분 효과는 좋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물수분은 증류수, 현탁액, 교반기, 색소, 분사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는 “꽃가루의 활력은 참다래의 착과율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수분 전 반드시 꽃가루 활력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참다래 풍년 농사에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배 정형과 생산은 열매숙기부터...

- 병해충 피해과, 기형과 등 제거, 2~3회 나누어 실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해 열매숙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열매숙기(적과)는 결실량을 조절하여 과실의 크기증가, 착색증진 등으로 품질을 높이고, 해거리를 방지하면서 나무 자람세와 나무 모양을 유지시켜 고품질 정형과 생산을 위해 실시한다.
- 열매숙기 대상으로는 병해충 피해과실과 수정이 잘 되지 않아 모양이 고르지 못한 과실, 엽수가 적은 과실, 열매의 방향이 밑이나 직립된 것, 작업 중 손상된 과실을 따버려야 한다.
- 반면, 남겨야 할 과실은 열매다발(과총) 중에서 모양이 좋고 과실이 큰 2~3번과를 남겨야 하며, 열매자루(과경)는 길며 굵은 것이 좋고 4~5년생 가지에 결실된 과실이 고품질이 될 수 있다.
- 배나무는 결실 특성상 한 개의 꽃눈에서 8개 내외의 열매가 생기며, 아래쪽에서 번호를 붙여 나가며, 2~3번과 중에서 1개만 열매로 이용된다.
- 또한, 열매숙기는 2~3회 나누어 실시하는데, 1차는 꽃이 떨어진 다음 일주일 후에 하고, 2차는 1차 열매숙기 후 7~10일 사이에 봉지 씌우기와 함께 하면 좋다. 봉지 씌우기는 장마가 오기 전에 마쳐야 한다.
- 특히, 금년에는 추석이 예년보다 늦은 10월 초순에 있어 조기 수확을 위해 지베렐린을 도포할 필요가 없으며, 전남농기원은 고품질 배 생산과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2022년까지 지베렐린 사용을 근절할 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매실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정보와 이용방법을 제공하면서 청매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 매실은 유기산 함량, 특히 구연산(citric acid)이 많아 피로회복과 식중독 예방, 항균 효과가 뛰어나 매실청·매실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아미그달린(amygdalin)을 둘러싼 논쟁으로 매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매실의 씨앗 속에 들어 있는 아미그달린은 매실이 성숙함에 따라 그 양이 크게 감소돼 잘 익은 매실을 가공하면 독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
 - 하지만 덜 익은 매실은 우리 몸속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시안배당체를 만들게 되는데 많은 양의 씨앗을 먹는 경우 심한 구토나 복통과 같은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시안화수소 치사량은 성인 기준으로 60mg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덜 익은 풋매실 100~300개를 먹어야 발생하는 양이다.
- 매실은 익은 정도에 따라 풋매실·청매실·황매실로 나누며 청매실을 풋매실로 잘못 알아 논란이 일기도 한다.
- 풋매실은 칼로 자르면 씨앗이 쉽게 잘리는 덜 익은 매실로 과육이나 씨앗 속에 아미그달린이 많이 들어 있는 반면, 주된 약리성분인 구연산은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친다.



- 청매실은 열매의 껍질이 푸른색을 띠고 있으나 씨앗이 충분히 여물어 핵(核)표면은 갈색으로 칼로 잘리지 않는다. 구연산 함량이 높으면서 과육도 단단해 장아찌나 매실청으로 알맞고 주로 6월 상·중순에 유통된다.
- 황매실은 열매의 껍질이 노랗게 변한 매실로 향이 좋고 유기산 함량도 많아 매실주용으로 적합하다.
- 매실 재배면적은 2000년 1,034ha에서 2015년 6,488ha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청매실 독성 논란으로 소비량이 급감해 생산농가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실을 생산하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의 송명석 농촌지도사는 “풋매실을 수확하지 않도록 해마다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확한 매실이 유통에 적합한지도 꼼꼼히 조사하고 있어 풋매실이 유통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매실 안정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5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청매실】



【황매실】

꽃양귀비 앞에서 의약소재 대사물질 밝혀내

- 항암·항염·항진통 의약소재로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꽃양귀비의 앞에서 항암·항염·항진통 효과가 있어 의약소재로 활용 가능한 켈리도닌(chelidonine)·프로토피핀(protopine)·크립토피핀(cryptopine) 물질 등을 확인했다.
- 이 연구에서 확인된 켈리도닌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과 평활근의 진경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물질이다. 진통작용은 마약류 양귀비의 모르핀과 비슷하며, 효과는 마약류 양귀비에 함유한 파파베린(papaverine)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프로토피핀은 항암, 해독제, 소염, 지혈, 타박상, 관절염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애기똥풀, 팔선초(갈퀴덩굴), 피나무 등에서는 보고된 바 있다.
- 또한 크립토피핀은 유독 알칼로이드지만 이런 특성으로 인해 최면제·진통제 등 의약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양귀비목(Papaverales) 현호색과(Fumariaceae) 현호색속(Corydalis) 및 금낭화속(Dicentra) 식물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귀비목(Papaverales) 양귀비과(Papaveraceae) 양귀비속(Papaver) 꽃양귀비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개양귀비】



【다양한 품종의 개양귀비】

■ 시설재배 무화과 『대만총채벌레』 방제 서둘러야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설재배 무화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만총채벌레』 방제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만총채벌레는 어른벌레 크기가 1~1.5mm의 매우 작은 해충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무화과·토마토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은 물론 잡초에도 많이 발생한다. 시설재배에서는 해충의 증식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한데, 6월 중·하순에 밀도가 가장 높다. 과일에 침입하는 시기는 크기가 2cm 내외일 때이며, 5월 중·하순부터 가을까지 지속된다. 침입 후 내부의 꽃을 가해하는데, 중심부가 갈변되고, 심한 경우 썩어서 떨어지기도 한다. 방제는 해충이 과일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성 농약으로도 매우 어렵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대만총채벌레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방제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해충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과수원 바닥을 흰색의 멀칭 재료로 피복하면 해충의 한살이를 방해하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총채벌레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잡초에도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재배기간 내내 효과를 볼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복숭아순나방붙이 제때 방제로 자두 낙과 예방하세요

- 첫 번째 방제적기인 5월 중순부터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자두 낙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알 낳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근 자두 주산지에서는 과실에 나방 애벌레(유충)가 파먹고 들어가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방제를 소홀히 한 과수원에서는 피해과율이 20%를 넘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두 과실을 먹는 이 해충의 정확한 이름과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웠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에서는 자두 과실에 피해를 주는 이 나방의 애벌레가 『복숭아순나방붙이』이며, 방제적기는 5월 중순, 6월 중·하순, 7월 하순~8월 상순, 8월 하순~9월 상순임을 밝혀냈다.
- 지난 3년간 이천·김천·전주 등 자두 과수원에서 과실에 피해를 입히는 애벌레를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개체가 『복숭아순나방붙이(Grapholita dimorpha)』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종은 복숭아 과실을 주로 가해하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과는 외형이 거의 동일하지만 먹이식물과 발생시기가 달라 방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두 과수원에서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해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성충은 1년에 4세대를 지나며, 각 세대의 발생최성기가 5월 상순, 6월 중순, 7월 하순, 8월 하순임을 확인했다.
- 따라서 자두를 재배 농가에서는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인 5월 중순, 6월 중·하순, 7월 하순~8월 상순, 8월 하순~9월 상순에 나방 방제용 살충제를 뿌려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파먹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양창열 농업연구사는 “복숭아순나방 붙이는 익지 않은 어린 자두를 가해하므로 생육초기부터 철저히 방제하고, 자두 수확 후에는 주변에 있는 사과나 배 과실로 이동해 가해하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자두 피해 과실】



【피해 과실 속 복숭아순나방붙이 유충】

■ 폭염 피해 막을 가축 열스트레스 지수 개발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한우리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가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를 활용하면 5월에서 9월까지 지역마다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온피해 발생 가능성에 맞춰 적절한 사양관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스템은 기상청 기상자료인 온도와 상대습도를 활용해 가축의 『열스트레스지수(TemperatureHumidityIndex, 이하 THI)』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 사람의 불쾌지수에 해당하는 THI는 수치가 높을수록 가축의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한다.
- THI 『경고단계』에서 가축은 사료섭취량과 체중 감소, 생산성 감소 등이 나타나고, 『위험단계』에서는 심한 헐떡거림과 탈수·탈진, 체내 전해질과 호르몬 균형 이상이 발생한다. THI가 『최고단계』인 경우 심하면 폐사한다.
- 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인 『한우리 누리집(hanwoori.nias.go.kr→가축사육기상정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조회하려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날씨정보와 함께 축사 외부의 열스트레스 지수, 단계별 사양관리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를 적용해 1973년부터 2100년까지의 여름철(5~9월)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 지수 분포도도 확인할 수 있다.
-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은 사료섭취량 감소로 가축의 증체량을 떨어뜨리며, 폐사의 원인이 된다.
-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많아져 가금류 폐사 건수는 2015년 253만 마리에서 2016년 428만 마리로 크게 늘었다.
-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와 취약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저감과 복지를 고려한 사양기술, 사료 첨가제, 사료작물 신품종, ICT 장비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이성대 농업연구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상재해가 잦은 상황에서는 가축이 받는 환경요인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시스템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폐사율 등을 개선해 농가의 안정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나서

- 22일부터 1개월간 양파·마늘 수확 등 집중 지원 -

-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선다.
- 전라남도는 양파 수확, 모내기 등이 집중되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까지 1개월간을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분위기를 조성,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 수확, 과실 숙기 및 봉지 씌우기 등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이다.
-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일손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 본청과 시군, 읍·면사무소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 또한 일손지원에 참여한 도시민이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등 도농(都農)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농산물 사주기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 전라남도는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이 1회 이상 참여하는 등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체 농촌 일손 돕기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농번기 효자사업 『마을공동급식』 확대

- 지난해보다 253개소 늘어난 1천 12개소 추진 -

-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 가사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지난해보다 253개 마을이 늘어난 1천 12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 등 농번기철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연간 25일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2014년 하반기 처음으로 순천·나주·고흥·해남 등 9개 시군 253개 마을에서 15일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여수 등 20개 시군 1천 12개 마을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018년 까지 1천 200개 이상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동급식 대상 마을은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곳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요 조사를 거쳐 1천 12개 마을을 확정했다.
- 전라남도가 4년째 시행하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마을주민 간 친목 도모는 물론 농업인들의 시간 절약과 여성 농업인 취사 부담 경감 등 매우 유익한 농촌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특히 농번기철 가사와 농사일을 도맡아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중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홀로 사신 어르신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농번기 효자사업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동계 사료작물 76만톤 일제 수확

- 6월 상순 모내기 전까지 마무리... 생육상황 양호해 자급률 110% 기대 -

- 전라남도는 2016년 가을 파종한 풀사료의 본격적 수확 시기를 맞아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를 동원해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동계 사료작물 76만톤을 6월 상순 모내기 전까지 수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올 봄에 추가 파종을 확대하고, 봄철 강수량이 적당해 풀사료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돼 수확 목표량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올해 생산량 76만톤은 전남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44만 마리가 하루 풀사료 6.5kg씩 266일간 급여할 수 있는 물량이다.
- 또한 올해 조사료 생산량은 117만톤(사료작물초지 83만 5천톤, 벣짚 33만 5천톤)으로 전남지역 사육 가축의 조사료 총 소요량 106만 3천톤의 110%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올해 풀사료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 전라남도는 풀사료 수확기를 앞두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가 필요한 시군에 대해 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등 조사료 수확 장비 92세트 156억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539억원을 지원해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 앞으로도 동계 사료작물 수확에 이어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 옥수수과 수단그라스 등 하계 사료작물을 약 4천 500ha에 재배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수입묘목재배지 등 외래식물병해충 중점예찰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묘목류 수입증가에 따라 외래식물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검출률이 높은 수입 묘목류의 재배지(5월 현재, 전국 1,105개소) 등에 대하여 '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일제 조사를 통한 중점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중점예찰기간 동안에는 중점예찰대상 수입묘목류 20품목과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실적이 있는 묘목류에 대한 집중 예찰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 중점예찰대상 수입묘목류 : 동양란묘, 산스베리아묘, 팔레노프시스묘, 카네이션묘, 드라세나묘목, 폴리시아스묘목, 행복나무묘목, 용설란묘, 고무나무묘목, 알로카시아묘, 파키라묘목, 크로톤묘목, 안스리움묘, 자미오쿨카스묘, 슈프레라묘, 녹보수묘목, 아누비아스묘 등
-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중점 예찰 대상 병해충 12종(병2, 해충9, 잡초1)에 대한 포장순회 조사를 1.5배(월 2회 이상→월 3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중점 예찰대상 병해충 : 바나나좁나방, 흰개미, 선녀벌레과, 캐나다 엉겅퀴, 담배잎말림바이러스, 블루베리혹과리, 관총채벌레과 등
- 아울러 묘목류에서 자주 발견되는 병해충에 대한 정보교류 및 교육을 통해 전국 150명의 민간 예찰전문요원과 식물검역관과의 민·관·학 합동 예찰을 확대 실시하여 대국민 홍보 등 외래식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인 대응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돌산갓 농림부 6차산업 공모사업 선정 3억원 확보

- 시, 생산자·제조업체·관광업체로 사업단 구성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 특산품인 『돌산갓』을 주제로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생산자단체인 여수시돌산갓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돌산갓김치 제조업체인 웰빙촌친환경영농조합법인, 영심푸드, (주)한일 식품과 체험형 농촌관광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송시마을로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앞으로 사업단은 돌산갓을 활용해 저염식김치·갓우거지 된장국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초청 팝파티 등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도 사업단의 역량 강화와 자립화를 위해 시장개척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원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광양매실초콜릿 상품화로 판로 확대 나선다

- 시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관내 『프랑드르 베이커리』(대표 황미선)에서 매실초콜릿 상품화를 위한 광양지역 공개 시식·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광양매실을 이용한 초콜릿의 상품화와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위해 진행하며, 시식·평가회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 상품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명물 먹거리 상품화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역의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을 활용해 광양을 대표하고 시민 뿐 아니라 관광객이 쉽게 사갈 수 있는 간편먹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 시는 2월 ‘프랑드리 베이커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1천만원(시 지원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매실초콜릿을 개발해 왔다.
- 이은희 농식품가공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광양시의 대표적인 관광 먹거리 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귤초콜릿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매실초콜릿하면 소비자가 우리 광양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광양시가 지난 해 개발한 광양매화빵은 매실과육과 팔소가 적절히 조합돼, 상큼하고 담백한 맛으로 광양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공장설립과 함께 HACCP 인증을 받아 상품성과 식품위생,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으며, 현재 LF스퀘어, 느랭이골 휴양림, 우체국쇼핑, G마켓에 입점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 보이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못자리 생략 직파재배 생산비 절감 농가 호응

- 벼 재배 총 노동시간 23%, 총 생산비 10% 절감 -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인수)은 5월 10일 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과면 무창리 황등들에서 무논직파 연사회를 가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물이 있는 논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기술이다. 기존 직파재배의 단점을 보완하여 논 물 관리를 통해 잡초를 방제할 수 있다. 또한 육묘에 소요되는 못자리 기간을 생략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기술이다.
- 금년에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볍씨에 철분을 코팅하여 직파하는 재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새 피해를 줄이고, 철 코팅 과정에서 석고에 의한 발생된 열과 철의 완전한 산화과정에서 온탕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군에서는 자체사업비 3천 5백만원을 들여 3개소 10ha의 면적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직파는 지난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직파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파재배는 못자리 기간 전체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행 모내기 재배에 비해 벼 재배의 전체 노동시간 중 23%가 줄어들고, 총 생산비의 10%가 절감된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곡성군

■ 보성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7년 해금 참다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에 승인됨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 조성면 농공단지 내에 자리를 잡은 해금 참다래 친환경유통센터(1,816㎡)를 비롯하여 저온저장고(660㎡), 2조라인 선별시스템 및 자동제함기 등이 올해 9월말 설치되면 친환경 해금 참다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다래 친환경 10개년 기반구축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는 414톤, 내년에는 689톤, 10개년이 되는 2026년에는 2,822톤의 참다래를 선별·유통하여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성군은 친환경 인증비 지원, 친환경 농자재 사용법 및 위생관리, 컨설팅, 교육 등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보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친환경 인증비 지원으로 45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05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참다래 친환경인증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인증센터와 연계 회천면 일대 참다래 재배지역 15ha를 인증 신청 중에 있고, 2017년에는 20ha, 2018년 32ha, 2026년에는 110ha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농약,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공동구매방식을 추진하여 참다래 농가가 의무적으로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교육 강화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군에 따르면 PLS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불검출 수준의 양)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 제도는 지난 해 말부터 견과종실류(참깨·들깨·밤·호두·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키위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시행중이며, 2018년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처리된다.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화순군은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영농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교육, 홍보용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화순군

■ 영암군,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활동 지원

- 관내 복지시설 등 순회 교육 실시 -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은 생활 원예를 육성하고 원예 활동 생활화 보급 지원을 위해 5월 10일부터 관내 복지시설, 군 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원예 체험 활동은 부모 자녀 관계 향상, 주의 집중력 향상, 인지 기능 향상,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의 효과를 위해 카네이션 꽃 바구니 만들기, 볼토피어리 만들기, 액자 정원 만들기, 압화 거울 만들기 등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아울러 허브정원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향기 포푸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실내외 미관을 참가자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원예 체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도정 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 개설됨으로써 지역민의 사회성, 집중력, 정서 안정 등의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하였다.

* 출처 : 영암군



■ 영광군,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 교육 신청 안내

- 영광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식품제조업 창업 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품목보고와 생산실적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이해 등의 이론교육과 건조, 분말, 추출, 환 제조 등의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어 농업인의 가공 기술력 배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 교육은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7회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농산물 가공창업 실무교육 이수자 중 자가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 제조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15명이다.
- 교육신청은 5월 19일까지 선착순으로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떡 산업육성)이며,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농지원부, 건강 진단결과서)를 확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 전화 350-4838

* 출처 : 영광군



8. 해외 농업정보

◆ 국립종자원, 케냐·베트남과 품종보호 MOU 체결

- 2년 이상 현지등록절차 단축, 종자수출 용이해져 -

- 국립종자원장은 우리 우수종자의 수출 확대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케냐 농축수산부 식물검사원(4. 24.) 및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작물생산국(4. 27.)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 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하게 된다.
 - 한국산 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하나,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간소화 체계를 공식화하였다.
 - 특히, 콜라비·무·딸기 등 우리 종자의 베트남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유럽·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장미품목이 케냐를 거점으로 생산되면서 현지등록 절차 및 기간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본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의 협력 MOU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의 우선 등록요청 자료를 현장에서 전달하였다.
- 농진청 육성품종(6건) : (감자) 하령·고운·홍영·자영·새봉
(딸기) 고하

- 김재수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채소종자 수출 7위 국가로서 중요한 종자관련 교역국임을 강조하면서 수출종자의 권리 확보 및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양국의 실무협력 후속조치를 당부하였고,
- 품종출원 절차가 지연되어 왔던 감자와 딸기 등 6개 품종에 대해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등록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관계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 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동남아·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현재 현지 재배심사 없이 우리의 재배심사 결과만으로 품종등록 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란·에콰도르·콜롬비아·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앞으로 국내 종자기업의 종자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심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중국, 화훼산업 급성장

-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의 이점으로 중국의 화훼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아열대·열대 기후는 화훼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쭈성·저장성·허난성이 중국의 화훼 생산 총면적 1~3위를 차지함
- 중국 화훼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해당 산업의 소비 총액은 217억달러, 수출 총액은 6억 2,000만달러에 달함. 2016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화훼 생산 총면적의 1/3을 차지하였음. 중국의 화훼 총 생산 면적은 140만ha임.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 및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화훼생산지 면적을 계속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고 소비력이 증대됨에 따라 비싸더라도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개인 기호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음. 중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화훼 판매액은 2020년까지 1,566억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중국 정부는 2016-20년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진흥책을 발표했으며, 농업진흥책의 일환으로 화훼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 평균 16억위안 이상의 금액을 화훼산업에 투자함

- 2016년, 샤오미(小米)는 쿤밍(昆明)에서의 스마트 온실사업을 시작으로 화훼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쿤밍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 24일 윈난성 농업기술원과 샤오미 과학기술유한공사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쿤밍시 판룽지역에 윈난화훼산업원을 조성하였음
- 양자 간 합자방식으로 설립된 윈난미화원예술테크유한공사(云南米花园艺科技有限公司)는 5,000만~1억위안을 투자해 3년 내 10ha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건설하여 연 2,000만 개의 분재 화분을 생산하고 약 2억위안의 매출 창출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지원정책의 확대, 중국 내수시장 성장 및 전자유통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중국 화훼산업은 미래 신시장으로 급부상하였음
- 스마트온실, 천연가스 시스템, 비료순환 시스템 등 현대화 자동 생산 장비 관련 기술을 토대로 소형 화분의 생산 기술을 새롭게 통합하고 시범화 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정부 기관 및 농기업·협동조합은 중국에 구축한 중국현지 시험재배센터하우스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윈난성에 진출하여 현지시험재배센터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도 소재 화훼 농가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5. 15.(시카고 선물거래소)

□ 중서부 지역 파종 기후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옥수수 선물 가격 상승

○ 밀 선물시장 상황(▼0.2%)

- 밀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소폭 하락 마감하였음. 미국 남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의 과도한 습기로 인한 작물 품질에 대한 우려는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3%)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주말 전 환매수세 유입 및 중서부 지역 파종 기후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전일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향후 습한 기후가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0.2%)

- 대두 선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상개선 및 남미의 수확량 증가 전망으로 전일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수출 데이터 발표에 앞선 차익 실현으로 하락 마감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전남도, 우기 전 가입 권장... 보험료의 최대 86% 지원 -

- 전라남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대설 등)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주택 100㎡(30평급)의 경우 1년 보험료가 10만원 정도다. 이 중 국가와 지자체에서 5만 5천~8만 6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개인은 1만 4천~4만 5천원(기초생활수급자 1만 4천원, 차상위계층 2만 4천원, 일반인 4만 5천원)만 내면 된다.
- 보상 혜택은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100㎡(30평급)가 전파된 경우 6천 300만~8천 100만원으로 적은 보험료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전라남도는 풍수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과 풍수해 취약 지역 내 거주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점 가입 대상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 이·통장 등 마을 대표자 회의나 각종 교육 개최 시 풍수해보험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고, 반상회 회보 게재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 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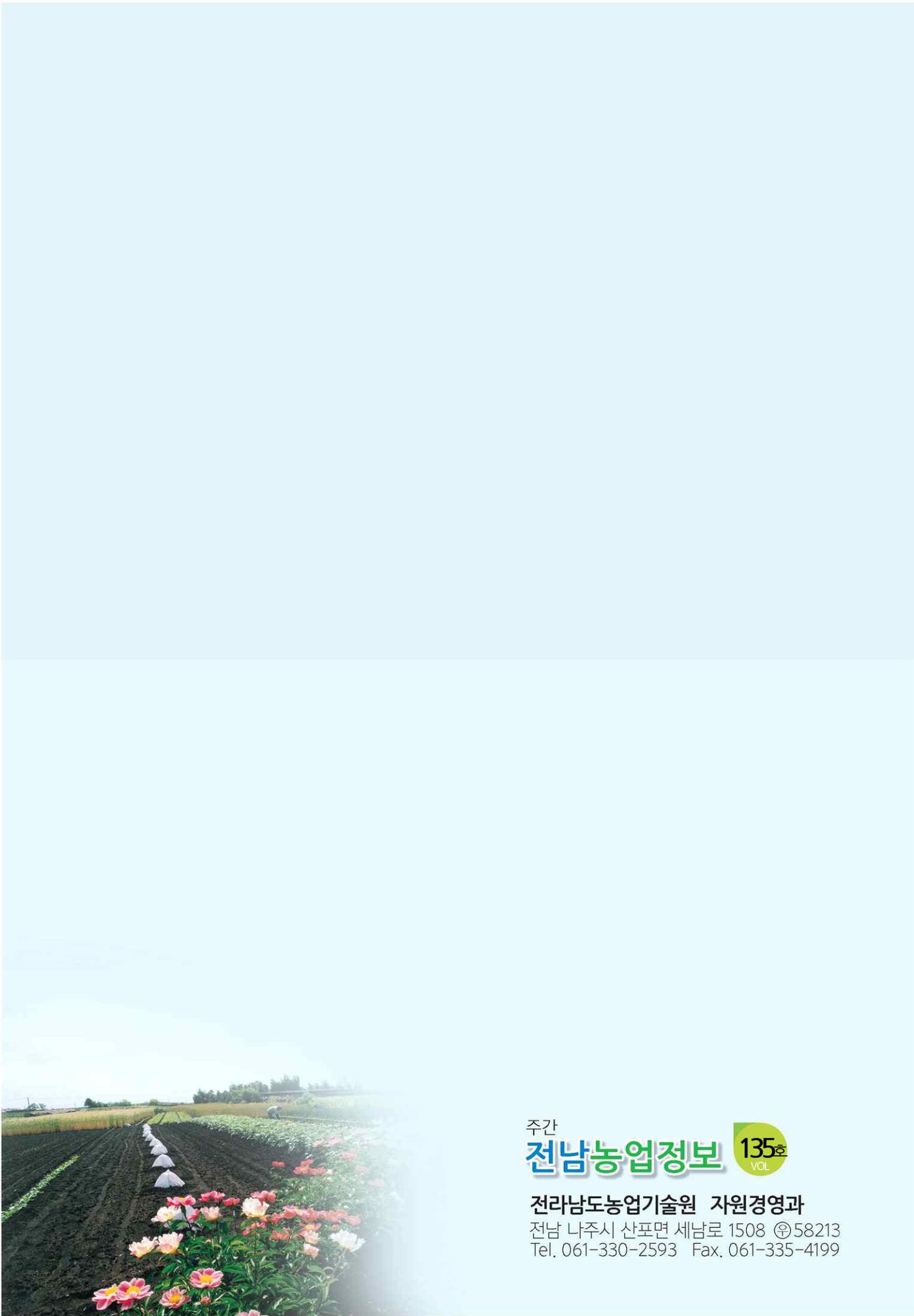
◆ 전남농기원, 유기농 매뉴얼로 친환경 인증 확대 앞당긴다

- 벼·참다래·강황 등 12작목 발간 완료, 올해에는 오이·차나무 추가 -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유기농 매뉴얼을 2016년 말까지 벼·강황·비파 등 12작목에 걸쳐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올해는 오이와 차나무를 추가하여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7,412ha로 전국의 50%를 차지하여 대한민국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목별 매뉴얼을 개발한 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
- 2016년까지 도내 주요 작목인 벼·고추·딸기·배추·참다래·무화과·단감·포도·강황 등 12작목에 대한 품종,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등 친환경인증 실천에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또한, 석회유황 등 손쉽게 값싸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 제조방법과 이용방법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만들기』와 유용미생물 활용 지침서인 『농업미생물 현장에서 활용하기』 매뉴얼도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농업기술원에서 발간한 주요 작목별 유기농 매뉴얼은 농가에서 알기 쉽고 실천 가능한 간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어 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올해는 지금까지 개발한 유기농 매뉴얼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반 교육도 실시하였고, 오이와 차나무에 대한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등 유기농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발간된 유기농 매뉴얼은 책자로 만들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가에 보급하였고, 농업기술원 누리집 『친환경농업』 과 『알림마당』 코너에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김희권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발간된 유기농 매뉴얼은 새로운 기술 등을 추가하여 계속 보완하고, 친환경농작물 단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유기농 패키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농업 내실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13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